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2호 | 2022년 5월

〈 차 례 〉

1. 〈논단〉 차기 총장에 바란다
2. 교수회 활동 보고
3. 자유 기고문
4. 장기근속 교원 안내
5. 공지사항
6. 단과대학 평의원 명단

논단

“차기 총장에 바란다”

경영대학장 이웅규(경영학부)



우리 대학 구성원이 새로운 총장에 대한 바람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구성원 모두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분명한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그리고 입학, 취업, 재학생 취업을 비롯한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의 획기적인 개선 등일 것이다. 아마도 총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설혹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도 최소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무엇(what)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how) 할 것인가다. 이제까지 우리 대학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계속되어 왔었다. 차기 총장은 우리 대학을 ‘돼야 하는 일은 반드시 되게 하고 할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는’ 대학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대학은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도 이전에 해 보지 못했던 구조조정이나 교원 인사를 비롯해서 학교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경영조직화 이론 가운데 하나인 ‘예외의 원칙(principle of exception)’에 따르면 일상적인 일은 하위자에게 위임하고 상위자는 중요하고 일관성이 낮은 예외적인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의 환경은 이제까지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총장은 일상적인 대부분의 업무는 과감하게 위임(empowerment)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익숙해져야 한다. 더불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책임이란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차기 총장은 원폭 투하를 결정한

트루만이 얘기한 ‘공은 여기서 멈춘다(The buck stops here.)’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이다. 모든 교수 각기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인문사회계 교수와 이공계 교수들 간에는 근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심지어 같은 전공 안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모든 다양한 가치관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대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상황은 이러한 다양성을 충족시킬 만큼 여유가 없다. 최근 우리 대학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을 볼 수 있다. 학과 차원 또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자신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새롭게 들어오려는 학과나 전공 또는 교수를 배척하는 움직임이다. 다시 말해 어떤 학과나 교수를 구제하기 위한 본부의 정책이 다른 학과나 단과대학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아마도 학교 환경이 불확실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optimal)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적의 없을 때는 일부만이라도 만족할 수준의 적당한(good enough)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욕먹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 대학의 모든 총장들은 한결 같이 적지 않은 욕을 먹었다. 그렇다고 그 욕 때문에 일이 크게 잘못된 일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총장은 이제까지 받은 비난과는 다른 차원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위기 그 자체다. 당연히 욕먹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욕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가령, 어느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해 또는 희생을 필요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총장은 어느 쪽을 손을 들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손해를 보는 쪽으로부터 욕먹는 일은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했을 때 양쪽 모두로부터 욕을 먹을 뿐 아니라 학교 전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차기 총장은 높은 책임감과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 그리고 강인한 추진력을 갖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메시아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메시아와 같은 총장을 원한다면 모든 구성원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메시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총장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바람은 모든 구성원은 차기 총장이 하려는 일과 방식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교수회 활동 보고 (2022년 3월~4월)

(1) 교수회 평의회

- 3월 17일(목) 긴급평의회 개최(온라인/Zoom)
 - ▷ 법인 총추위 규정 개정 합의 보고
 - ▷ 대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 규정 개정 안건 의결
- 3월 28일(월)~3월 31일(목) 대구대학교 전체교수회 총회 개최(온라인/전자설문)
 - ▷ 대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 규정 개정(안) 표결
- 4월 1일(금) 대구대학교 전체교수회 총회 결과 공고
 - ▷ 대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 규정 개정(안) 찬성 의결

(2) 총장선거 관련 활동보고

- 4월 4일(월): 대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규정 개정(안) 공표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선거방법 및 총장후보자의 결정
- 4월 5일(화):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규정 개정안 공표
- 4월 5일(화): 추천위원회 교수 위원 선임 요청- 각 단과대학 교수회 별로 1인 추천
- 4월 12일(화): 추천위원회 교수위원 추천명단 법인에 송부
- 4월 19일(화): 영광학원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위원장 황인조(공과대학 환경기술공학과)
 - 부위원장 김석범(사무처 시설부장)

(3) 교수회 정기회의 및 의장단 활동

- 3월 8일(화): 법인, 교수회, 직원노조 총추위 규정 개정 합의
- 3월 15일(화): 평의회 개최 준비

- 3월 22일(화): 전체 교수회 총회 개최 (3월28일~31일) 검토
- 3월 23(수)~24일(목): 단과대학 평의회에 참석, 총추위 규정 개정 설명
- 4월 7일(목): 교수회 통신 준비, DU Poll 회의
- 4월 13일(수): 의장과 총장직무대행과 면담(원만한 총장 선거 협조 당부)
- 4월 18일(월): 교직원 성과급 삭감 조치 반대 성명서
- 4월 25일(월): 의장단 교내연구과제 관련 연구처장 면담

교수회는 4월 18일(월) ‘교직원 성과급 삭감 조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2012다89399)을 근거로 ‘1) 교직원 보직수당,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처가 보직수당의 임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임금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획처는 법인과 협의하여 그간 미지급된 보직수당 삭감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는 학교가 위기일수록 교직원 임금을 포함하여 학교의 현안들이 신중하게 판단됨은 물론 그 판단 과정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가 적극 참고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판결 일부 내용)

자유 기고문 ①



“대구대학교의 새로운 리더에게 바란다”

양성철 / 부동산지적학과

우리 대학의 오늘은 수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것을 느끼며 과거의 변화에서 현재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일상화된 생활을 하고 있다.

2019년 11월 처음 발병한 코로나는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눈앞에 둔 현시점이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서막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뉴 노멀과 같이 단번에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규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오늘은 구성원에게 가혹한 사회의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태할 것인지, 이를 헤치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를 축하하며 향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겪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2021년 대구모 신입생 정원 미달은 입학자원의 감소를 예측하였음에도 예상보다 엄청난 크기로 우리 대학에 특히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를 빠르게 봉합하고 치유하여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대학에 잠재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전국에서 가장 입시를 실패한 대학으로 대서특필됨과 동시에 대학 집행부의 와해, 재단과의 갈등까지 대구대학교에 큰 관심이 없었던 국민들에게 알리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언론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섞어서 실제보다 과장해서 우리 대학이 이목을 끌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 실패라는 사실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

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올해의 입시도 주변 대학과 비교한다면 전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입시를 실패하였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학 전체의 위기로 악화되었는가? 왜 환부만을 도려내지 못하고 온몸으로 병이 퍼졌을까? 우리 대학이 그럴 정도로 허약한 대학이었을까? 끊임없는 자문은 결국 아무런 답을 구하지 못하고 끝나곤 하였다.

2014년 우리 대학에 임용되어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는 타 대학에 비해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내가 대구대학교 구성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었고 나름대로 자유로운 방법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자유로운 노력을 누군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모을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입학은 재학생 충원과 이어지고, 취업과 이어지며 대학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입학에 대한 위협 요소가 부각되고 있을 때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했었을 것이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속에 우리 구성원들은 차라리 퇴보 속 자유보다는 전진 속 간섭을 희망하는 이들도 생기게 되었다. 문제는 자유의 반대책으로 간섭을 선택한다고 전진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늦으면 우리 대학은 자기 색깔을 잃고 지표를 하나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며 대학으로서의 본모습을 잃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나락 직전까지 떨어져 왔다. 우리에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역량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리더가 우리 대학의 고유한 특성에 색깔을 입히고 하나로 모아서 지금을 극복하고 미래를 보여줄 시기이다.

다행히 여러 고난 속에 선거가 곧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기존 리더도 우리 손으로 뽑았으며 새로운 리더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다.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엄정한 잣대로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리더에게 바란다.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정상’ 이전에 기존의 ‘정상’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존의 ‘정상’을 학생들에게 제

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 새로운 ‘정상’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교단에서,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정상’에 따라 강의하고, 업무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의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도 의도대로 읽힐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비상식적인 정책, 소통의 부재, 협치의 부족, 맹목적인 반대, 이기주의, 정당한 대가의 미지급, 억지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대학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며 합리적인 보상이 따르도록 하여 구성원이 스스로 이 어려운 시기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 대학의 본모습인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일 것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협조라는 명목으로 강제하지 말고 구성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해주길 바란다.

리더가 우리 대학에서 가장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개별 부서의 업무가 대학 전체의 발전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 대학의 총장 직선제가 가진 취지와 이를 통해 구성원이 총장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리더가 선출되기를 희망해본다.

자유 기고문 ②

“우크라이나의 장애인과 재활”

김환 / 작업치료학과



전쟁상황은 장애인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죽는 시기이다.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렵다. 빠져나오더라도 눈 앞의 험난한 피난길은 더 큰 문제이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 진창길을 갈 수가 없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증장애 아동들의 대피도 큰 문제이다. 피해서 도착한 임시보호소에서는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우크라이나 장애인들이 현재 겪고 있을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의 장애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었다. 성명서는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전쟁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과 연대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전시상황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가 지켜지기를 바란다. 즉, 전쟁 피해지원 및 회복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쟁은 또한 새로운 장애인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출현시킨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양국의 전사자는 45,000에 달한다고 한다. 보통 전상자가 전사자의 3배에 이르게 된다는 말로 짐작해보면 이미 13-14만 명에 이르는 군인들이 전투력을 상실한 기능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간인 피해자도 많이 나올 것이다. 대체로 전쟁 관련 신체 손상은 폭발물과 파편에 의한 근골격계 손상, 절단 손상, 외상성 뇌손상, 시각장애 등이고 폭발음, 충격에 의한 청각장애, 또한 PTSD와 같은 외상 후 정신건강 문제도 발생한다.

아이러니하지만 전쟁은 재활을 발전시킨다. 사실 재활의학, 재활치료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된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27병원

과 한국전쟁 이후 상이군인을 위한 부산 동래정양원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구소련으로 독립한 후에도 구소련의 전통적 재활시스템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 요양소와 온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료 마사지, 사우나, 온천치료 등 환자의 수동적 활동 위주의 서비스였다. 2014년도 동부의 돈바스 전쟁 이후로 재활 시스템 개혁(Rehabilitation Reform)을 시작하면서 재활법을 만들고 보건 분야를 확대하면서 NATO와 유럽의 NGO 지원을 통해 새로운 재활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게 되었다.

돈바스 전쟁 전상자 25,000명에 대한 신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수도 키이우 국립 대학과 각 지역 병원에 현대식 재활치료 기술이 소개되었고 장애를 가진 군인들에 대한 의지/보조기 제작, 직업재활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북한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던 핸디캡인터내셔널(HI)과 국제적십자사(ICRC)를 포함 여러 국제사회의 장비 및 기술지원 협력이 있었고, 전문가 역량개발을 위한 치료기술 전수, 현장지도가 집중되었고, 지속가능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대화된 학석사 과정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양성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다시 재건(reconstruction) 되어야 할 우크라이나의 재활(rehabilitation) 시스템이 복구되기를 기원한다. 병원과 시설은 무너졌으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면 잘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속히 푸틴의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도한다.

장기근속 교원 안내



자장 표창(장기근속)을 축하합니다



근속 년수	소속	성명
35년	과학생명융합대학 화학생명과학부	유병제
30년	경영대학 호텔관광경영학부	이주희
	과학생명융합대학 화학생명과학부	이영옥
	과학생명융합대학 화학생명과학부	장세현
	과학생명융합대학 동물자원학과	조익환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문병현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김중규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도용태
	재활과학대학 재활심리학과	김홍근
25년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정섭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유영익
	재활과학대학 재활공학과	이근민
	AI학부	김희철
20년	법·행정대학 행정학과	송건섭
	법·행정대학 경찰학부	김정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준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사회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김미령
	공과대학 환경기술공학과	김문현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강신재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융합학부	이해만
	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	구남진
	조형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김시만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송록영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임석희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정철
	성산교양대학(S-LAC) 자유전공학부	박영식

근속 년수	소속	성명
10년	인문대학 체육학과	남인수
	인문대학 스포츠레저학과	한건수
	인문대학 유럽문화학과	베르투리스
	법·행정대학 법학부	고상현
	법·행정대학 법학부	이승환
	법·행정대학 행정학과	이승철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영주
	경영대학 경영학부	서란주
	경영대학 경영학부	정인준
	경영대학 경제금융학부	기돈 리
	경영대학 호텔관광경영학부	김현정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사현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현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최경숙
	사회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	노성향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안병익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성해
	과학생명융합대학 화학생명과학부	심준호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권제중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강수태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이길하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이동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임학규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이정희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이강현
	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	김진
	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	장진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최영림
	조형예술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정경숙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박경옥

공지사항

- (1) 총장선거 관련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수회 홈페이지의 총장선거 게시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포털 전체공지사항(교내)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일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는 교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겠습니다.

- <https://prof.daegu.ac.kr>

- (2) 교수회에서는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포털 메일 참고하셔서 의견 제안을 요청드립니다.

- 제안 주제: 제13대 총장선거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
- 제안 대상: 교수회 의장단, 선관위, 입후보자 등
- 제안 일시 : 2022년 5월 2일(월)~11일(수)
- 제안 방법 : 구글폼 <https://forms.gle/NQ6aqxKG1EjiQZQu8>

단과대학 평의원

(2022년 5월 1일 현재)

단과대학	회원수	평의원	
인문대	29	김봉정(글로벌언어문화학부)	민성기(글로벌언어문화학부)
법·행정대	33	고상현(법학부)	김동신(행정학과)
경영대	43	김영주(경영학부) 정준희(경영학부)	김현정(호텔관광경영학부)
사회과학대	46	이소영(국제관계학과) 정소희(청소년상담복지학과)	노성향(아동가정복지학과)
과학생명융합대	34	황근보(빅데이터학과)	사공동훈(생명환경학부)
공과대	54	황인조(환경기술공학과) 이우성(조경학과)	이미령(식품영양학과)
정보통신대	33	장중혁(컴퓨터정보공학부)	이강현(전자전기공학부)
조형예술대	27	최영림(패션디자인학과)	박진우(산업디자인학과)
사범대	70	김익표(수학교육과) 박종근(지구과학교육과)	권순우(특수교육과) 임석희(지리교육과)
재활과학대	27	김환(작업치료학과)	김명권(물리치료학과)
성산교양대	2	박영식(자유전공학부)	
간호대학	11	강수진(간호학과)	
독립학부	12	여준호(AI학부)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2호

발행인 : 양진오(의장)

편집인 : 차정호(부의장), 이가연(부의장)

교수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교수학습지원관 1층 1101호

사무실 053.850.5753 팩스 053.850.5754

홈페이지 <https://prof.daegu.ac.kr>